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송병국* · 전주연

순천향대학교 청소년상담전공(충남 아산시 신창면)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시작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지역의 중학생 672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의 특성(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청소년시기 진로지도나 상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주요어: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청소년

* 교신저자(송병국) e-mail: bksong@sch.ac.kr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대학교

1. 서론

진로란 개개인에게 독특한 것으로서 개인이 일생동안 자기 자신을 표출하게 되는 일과 인생의 역할 전체를 말한다(연문희·강진령, 2005).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다. 대체로 진로결정은 청소년기 후기에 이루어지나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은 이미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중학교시기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 중 Ginzberg의 이론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인 환상기(대개 6세~11세)에서 벗어나 잠정기(대개 11세~17세)로 진입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에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 및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진로의사 결정과 계획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정철영 외, 2004: Super et al. 1996). Super의 발달단계이론에서도 중학생은 성장기(출생에서 14세까지의 기간)에서 벗어나 학교, 여가생활, 시간제, 일 등을 통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보고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탐색기(15세부터 24세까지)에 들어서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진로의 선택과 준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진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개인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 즉 개인이 어떠한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발휘의 기회, 거주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이재창, 1986).

이러한 진로선택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도 시대 흐름에 맞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6.9%에 불과하던 청소년들의 직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2010년도에는 24%

로 높아져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맥락과 환경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회인지이론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결정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성별과 같은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나 장벽과 같은 사회맥락 변인으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맥락변인의 예가 진로장벽이라 할 수 있다(고복순, 2011).

진로장벽의 개념과 관련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정의는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인데(손은령, 2001; Crities, 1969), 이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은 그의 제한-타협 이론에서 개인이 직업포부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만나게 됨으로써 포부를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제안 하였다.

진로장벽 연구들은 여성의 진로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여러 연구자들(Luzzo, 1996; Mcwhirter & Luzzo, 1996; 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진로발달 과정에서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진로연구자들은 진로장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상희, 2005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 외, 1991)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고 이러한 발달과업을 수행하

는 인지 및 수행 여부가 다음 발달단계로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강원덕(2009)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한 학생이 낮게 인식한 학생에 비해 진로태도성숙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영(2001)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희(2005)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이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라는 주장(Lee, 1994; Luzzo, 1996; Shuttleworth, 1992)에도 불구하고, 진로장벽이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진로장벽을 연구할 때, 그동안 주로 다루어졌던 분야는 성별에 따른 차이였다. Betz 와 Fitzgerald(1987), Farmer(1985) 등은 여성의 진로발달과 남성의 진로발달은 차이가 있으며, 여성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남성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애착, 성역할, 진로장벽들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손은령, 2001, 재인용).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손은령, 2001)가 있는 반면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이기학, 2003)도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희(2005)를 비롯한 다른 연구들도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조은주, 2001).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회활동 시작 전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장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진로장벽은

다양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진로와 관련된 여러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손은령, 200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선택은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인생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다.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진로선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진로장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를 직접 비교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nzberg의 이론에 근거한 진로를 탐색 및 준비하는 잠정기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진로교육 및 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는 그들의 특성(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장벽

진로장벽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을 ‘장벽(barriers)’ 또는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s)’으로 부르기도 하며(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Shuttleworth, 1992), 또한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으로 명명하기도 한다(Luzzo, 1997; 손은령,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Swanson과 Tokar에 의해서 진로장벽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CBI)가 개발되면서 관련 연구도 늘어나고 점차 ‘진로장벽’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손은령, 2001).

진로장벽에 대한 개념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wanson과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개인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향상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함으로써 진로장벽의 개념에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을 포함시켰다. 또한 London(1997)은 진로장벽이 개인, 직업 환경 또는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실, 핸디캡, 변화, 갈등, 기대와 직무 및 요구 사항들의 증가, 낮은 수준의 고용, 부정적인 수행 평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진로장벽(career barrier)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취업, 진학, 승진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Gordon(1981)이 정의한 진로장벽 특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에 관한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이를 나열해 보면 흥미, 가치, 능력, 욕구, 자아개념, 성숙도, 동기, 에너지 수준, 대학수준, 의존성, 독단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귀인/보유, 중요한 타인들에 대한 영향, 성별, 사회적 도덕적 태도, 위험 감수하기, 부모의 수입, 고등학교 성적, 과외 활동, 일의 경험, 부모의 교육 수준, 생애 목표와 포부, 대학 성적, 성취 검사 점수, 회피 행동, 직업 정보 결여, 의사결정 기술과 유형 등으로 다양하다(김은영,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에 의하여 개인은 진로장벽을 지각하게 된다.

진로장벽은 개인 내적장벽과 개인 외적 장벽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손은령, 2001), 여기에서 내적 장벽은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화 같은 심리적 측면이며, 외적 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벽들이다. 즉, 진로장벽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진로와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장벽들을 의미하지만, 진로장벽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존하므로 객관적인 요인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복순, 2011).

2.2. 진로성숙도

진로의식 개념은 모든 연령층의 발달 특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발달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Carter와 Strong의 청소년과 성인의 진로의식성숙의 흥미유형과 수준의 관계를 연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직까지도 진로의식성숙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른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Super, Crites, Gribbon & Lohnes 등이 있다.

Super(1984)는 진로성숙을 성장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도달점 또는 발달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직업성숙은 정신연령이란 개념과 비슷한 직업연령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정의

하였다. 즉, 그는 진로성숙을 그의 진로발달이론에 근거하여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vocational tasks)에 대한 준비도로 보았고, 한 개인의 진로성숙도 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이 그의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이희영, 2003에서 재인용).

한편, Crities(1981)는 Super와 함께 진로유형 연구를 수행할 때, 직업성숙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Super의 직업선택 이론에서 일관성과 현실성의 영역에 추가적으로 직업선택의 태도와 노력의 영역을 첨가하여 진로성숙도 검사를 만들어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Gribbons & Lohnes(1965)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고,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다(고복순, 201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은 진로의식 성숙을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단계를 위한 준비정도로 보고 있고, 김충기(2002)는 개인의 직업적 기술, 가치, 지식 등의 습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의식 성숙'이라고 정의하였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장석민 등(1991)은 진로성숙을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탐색,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학자들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이론을 종합하여 고복순(2011)은 진로성숙도를 '주어진 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진로결정이나 계획·선택에 관한 준비도이며, 개인의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진로를 탐색, 통합, 조정, 결정 및 적응해 나가는 연속적인 발달과정'으로 정리하였다.

2.3.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먼저 진로장벽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wanson과 Daniels(1994)은 가족관련 장벽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됨을 밝혔고, McWhiter(1997)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업적, 직업적 장벽을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이아라, 2006에서 재인용). 또한 김현옥(1989)은 진로발달에 남녀차이가 있음을 제안해 왔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손은령, 2001)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이기학, 2003)도 있다. 그러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진로장벽을 많이 느낀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고복순, 2011; 조은주, 2001)도 보고되고 있다. 진로장벽에 관한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주를 이룬다. Crites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남녀학생에 대한 진로성숙 정도를 살펴 본 이기학(1992)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덕(200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인 진로성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현옥(1989)도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실적이며, 직업 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조아미, 2000)도 보고되어,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중 연령 또는 학년에 따라 체계적

으로 변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Crites, 1974).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점수의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Crites, 1978),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년일수록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임연 외, 2001에서 재인용).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진로성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을 지라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직·간접적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임연 외, 2001). 이주희(2011)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생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영(200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2005)와 조지혜(2007)도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Swanson, Daniels 및 Tokar(199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진로성숙의 주요 요소인 진로미결정 및 직업정체성 변인과 진로장벽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는 단순한 선형관계로 볼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변인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상희, 2005).

한귀녀(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교특성에 따라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학교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남중 학생들과 공학 남학생들이 여중 학생들, 공학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남중 학생들과 공학 남학생들 간의 차이, 여중 학생들과 공학 여학생들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그리고 진로포부의 수준에서는 성별, 학교특성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진로태도의 성숙 수준에서는 여중 학생들이 남중 학생들, 공학 남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백정화(1986)의 연구와 이기학(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고등학생·대학생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표 1〉 대상자의 빈도분석 결과

		명(%)
성별	남	342(50.9)
	여	330(49.1)
학년	1학년	327(48.7)
	3학년	345(51.3)
사회경제적 수준	상	49(7.3)
	중	567(84.4)
	하	56(8.3)
학교성적	우수하다	93(13.8)
	보통이다	376(56.0)
	미흡하다	203(30.2)
총 인원 수		672(100.0)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 청소년들이다.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충청남도 지역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 가운데 C시, A시, E군 등 3개 시와 군을 선택하여 5개 중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년마다 2개 반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하였다. 청소년시기 가운데 중학교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초등학교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장벽을 느끼기 시작할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중학교 학년 가운데 2학년을 제외하고 1, 3학년생을 선택한 것은 학년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남녀 간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남, 녀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총 720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나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67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3.2. 측정도구

3.2.1.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장벽 척도는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이다. 남, 녀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는 7가지 하위요인(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일하며, 하위문항의 경우도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요인의 문항만 조금 다를 뿐 6가지 하위요인에 관한 문항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요인을 묻는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합하여 여학생 질문, 남학생 질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남, 녀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는 총 42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신뢰도는 황매향(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67~.86으로 보고되었고,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4~.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그리고 척도에서 얻어진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를 고려하여, 중,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진로성숙 개념을 규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임연, 정윤경 및 상경아(2001)가 개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성숙도 검사이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73(임연 외, 200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이다.

진로성숙도 척도는 총 114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태도검사 54문항, 능력검사 48문항, 준비행동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태도검사 5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배점을 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3. 청소년의 특성 변인

중학교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남, 녀), 학년(1학년, 3학년), 청소년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상, 중, 하), 그리고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교성적(우수, 보통, 미흡) 등을 조사하였다.

3.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충청남도지역의 3개 시와 군에서 중학교 6곳을 임의표집방식으로 선정하였고, 표집한 학교에서 1학년과 3학년 각 2반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청소년들의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내용, 설문 응답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부탁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 정도였다. 설문지를 수거 후,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지 672부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들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 유의도는 모두 .05이하에서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중학교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4.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표 2〉 중학교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진로장벽		N	M	SD	t	P
성별	남	342	80.96	17.9	6.098	.000
	여	330	72.42	18.41		
학년	1학년	327	75.6	19.43	-1.574	.116
	3학년	345	77.87	17.82		

〈표 3〉 중학교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진로성숙도		N	M	SD	t	P
성별	남	342	189.91	22.24	-3.3	.001
	여	330	195.7	23.2		
학년	1학년	327	190.65	23.73	-2.327	.020
	3학년	345	194.75	21.89		

중학교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진로장벽은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중학교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중학교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과 학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학교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높고, 1학년보다 3학년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1.2.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표 4>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장벽	변산원	SS	df	MS	F	Scheffe
사회 경제적 수준	집단간	6470.22	2	3235.11		
	집단내	226652.1	669	338.79	9.55***	상=중<하
	전 체	233122.32	671			
학교 성적	집단간	13167.81	2	6583.90		
	집단내	219954.52	669	328.781	20.025***	①<②<③
	전 체	233122.32	671			

*p<.05, **p<.01, ***p<.001 ①우수하다, ②보통이다, ③미흡하다

<표 5>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변산원	SS	df	MS	F	Scheffe
사회 경제적 수준	집단간	4642.45	2	2321.22		
	집단내	346632.04	669	518.16	4.48*	하<상
	전 체	351274.49	671			
학교성적	집단간	21177.92	2	10588.96		
	집단내	330096.56	669	493.42	21.46***	③<②<①
	전 체	351274.49	671			

*p<.05, **p<.01, ***p<.001 ①우수하다, ②보통이다, ③미흡하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중과 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미흡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 청소년들은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5>와 같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하인 집단과 상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성적은 '미흡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우수하다고 스스로 느낄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높음이 증명되었다.

4.2.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분석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장벽의 7가지 요인과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고, 검사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와 같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는 -0.4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결과가 나타났다($p < .01$).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7가지 중 진로성숙도와 부적상관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자기이해의 부족'(-0.46), '자신감 부족'(-0.45),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0.40) 등 이었다. 나머지 4개의 진로장벽 하위요인도 진로성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에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청소년의 진로장벽 하위요과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분석

진로장벽 하위요인	M	SD	진로성숙도
자기이해의 부족	2.54	.93	-.46**
자신감 부족	2.34	.61	-.4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14	.65	-.39**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54	.83	-.33**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2.52	.85	-.40**
경제적 어려움	2.3	.70	-.26**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2.27	.82	-.28**
진로장벽	2.38	0.77	-.49**

**p<.01

4.3.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7가지 중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장벽 하위요인 7가지를 독립변인으로 넣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결과 〈표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7가지 중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전체가 26.3%이며, 그 중 ‘자기이해의 부족’이 20.8%, ‘자신감 부족’이 3.4%,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이 1.4%,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0.7%로 나타났다.

<표 7>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F	R ²
		B	표준오차					
1	(상수)	16.388	.168		97.515	.000	175.943	.208
	자기이해의 부족	-.823	.062	-.456	-13.264	.000		
2	(상수)	17.213	.224		76.917	.000	106.541	.242
	자기이해의 부족	-.494	.086	-.274	-5.768	.000		
	자신감 부족	-.710	.130	-.258	-5.443	.000		
3	(상수)	17.486	.234		74.699	.000	76.736	.256
	자기이해의 부족	-.525	.085	-.291	-6.160	.000		
	자신감 부족	-.523	.139	-.190	-3.757	.000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277	.076	-.134	-3.637	.000		
4	(상수)	17.580	.236		74.466	.000		.263
	자기이해의 부족	-.446	.090	-.248	-4.936	.000	59.642	
	자신감 부족	-.432	.143	-.157	-3.017	.003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249	.077	-.120	-3.240	.001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227	.089	-.114	-2.544	.011		

5. 결론 및 논의

개인의 인생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하나를 선택하자면 진로 찾기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이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다면 이후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잘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진로선

택은 인생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청소년의 특성(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차이진로를 준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를 예언하는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은 성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리고 학교 성적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역시 그들의 특성인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교 성적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이주희, 2011; 김현옥, 1989; Crites: 1978)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교육이나 상담에서 그들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진로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는 낮아지므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성숙수준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한귀녀, 2009; 김은영, 2001; 손은령, 2001)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연구되

어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를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의 7가지 요인 중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의 4가지 진로장벽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4가지 진로장벽 하위요인들을 청소년들이 높게 지각할수록 그들의 진로성숙도는 미숙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과 학년 그리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교성적이라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장벽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러한 진로장벽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임은경, 1998)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에 부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말하며, 진로장벽의 지각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진로교육 및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직 진로장벽 연구들은 성차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일된 요인이 없는 상태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장벽요인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일된 요인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김종운 외, 2011). 또한 청소년들만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합의된 요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진로장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만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홍세희 등(2005)에 따르면, 진로장벽은 이미 초등학교 시기부터 지각되어 중학교시기와 고등학교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한귀녀, 2009,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기 과정에서부터 진로장벽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로장벽 극복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1, 3학년으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관한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보는 선행연구는 많지만, 중·고등학교의 발달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5개 학교로 한정지어 임의표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대표성 있고, 공정한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인으로 진로

장벽 외에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만을 변인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변인 외에도 지역, 형제순위, 환경적 요인 등 여러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원덕(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복순(2011). 중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운, 박성실(2011).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209-229.
- 김충기(2002).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정화(1986).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문희, 강진령(2005). *학교상담: 21 세기의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이기학(1992). 개인적 특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2003). 대학생의 진로교육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3-21.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식·정철영(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 영역과 직업포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3), 43-58.
- 이아라(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 포부의 관계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1986).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체계적 상담모형과 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논총*(2), 67-90. 충북대학교연구소.

- 이주희(201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9). 여중생의 진로태도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학연구*, 37(3), 279-321.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학지사.
-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중, 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은경(1998). 여성의 진로장애요인에 대한 고찰.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79-97.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조은주(2001). 파업과 계급형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계급의식의 형성과정. *한국산업노동학회지*, 7(2), 97-127.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2). *청소년 통계*.
- 한귀녀 외 2인(2009).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7(3), 211-235.
- 홍세희·황매향·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2005). 청소년용 남성진로장벽 척도의 타당화 검증 및 잠재 평균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CMI)*. Manchester, MO: McGraw -Hill.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Gordo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4 33-439.
- Lee, J. I.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lf-efficacy Expectations and Career Decision Status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Un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for Realistic Appraisal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and Career: Ethnic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cWhirter, E. H., & Luzzo, D. A. (1996). Examining Perceived Barriers, Career Interest-aspiration and Aspiration-congru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 s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Swanson, J. I. & Daniels, K. K. (1994).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 so Career 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I. & Tokar, D. M.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E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1996). Assessing Perception so Career 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uper, D. E.(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Savicka, M. L. & Super, C. M.(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In D. Brown & L. Brown(Eds.). *Career-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Received 14 February 2013; Revised 5 March 2013; Accepted 8 March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Byeong Kug Song · Ju Yeon Jeon

Soon Chen Hyang University, Sinchang, Asan City, Chungn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who were concretely worried about their career and occupation. 672 middle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to analyze th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data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that career barrier associated negatively with career maturity. Seco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ub-elements of career barrier which the adolescents conceived, such as the shortage of self-understanding, the shortage of self-reliance, gender-role conflict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the shortage of career and occupational information were significantly effecting their career maturity.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explainability of career barrier on career maturity, career barrier among various independent factors which were correlated statistically with career maturity showed most effects on it. Also, school academic achievement was confirmed as a significant factor effecting the career maturity.

Abov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erception on the career barrier of the adolescent should be reduced for increasing the career

maturity. For this, career education and counselling should be positively intervened and reinforced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and activities.

key words : career barrier, career maturity, the adolescent



Byeong Kug Song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 Counseling in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ungnam,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adult education and policy.

Address: (336-745) 22 SoonChunHyang-ro, Asan City, Chungchungnam-do, South Korea.

e-mail) bksong@sch.ac.kr



Ju Yeon Jeon is a graduate student of master course in Youth Counseling of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ungnam,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youth counseling and career education.

Address: (336-745) 22 SoonChunHyang-ro, Asan City, Chungchungnam-do, South Korea.

e-mail)